

 지구의벗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윤남식, 윤영주, 이현수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7길 5-6, 1층
날짜	2022.10.06.(목)

수신 각 언론사, 양산시

발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공혜선 활동가 010-3095-4025)

제목 **낙동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하는 낙동강협의체는 먼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라**

10월 6일(목) 양산시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낙동연 양산시장의 제안으로 김해시,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6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협의체’ 발족식과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낙동강 유역 지자체의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인 낙동강협의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생태탐방선과 수상레저사업 등 낙동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낙동강 관련 현안과 규제 개선 공동협약과 기타 낙동강 거점 공동문제 해결 등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낙동강 현안에 대한 지자체 공동 대응 협의체가 마련된 것은 반길 일이다. 다만, 현재도 진행 중인 낙동강 녹조대란의 현안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의원실,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미국의 강과 비교해 최대 523배로 오염된 낙동강의 발암물질·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과 뇌 질환을 일으키는 BMAA 등 남세균 독소의 에어로졸 확산 현황을 알렸다. 주택가가 있는 최대 1.5km까지도 확산되었고 바람에 따라 위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을 관광자원화하기 전에, 낙동강의 오염을 먼저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아닐까? BMAA와 마이크로시스틴이 코로 흡입될 경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씨병, 루게릭 병 등의 뇌질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수 차례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고되어 왔다. 식품으로 흡수될 경우에는 간 등의 해독 장기들을 거치게 되지만, 코로 흡입되는 경우는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해오고 있다. 주택가가 있는 1.5km까지 퍼져가는 녹조가 있는 낙동강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양산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레저시설은 반길 만한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그 레저시설에서 독이 뿜어져 나온다면, 그 위험성은 대책을 세우지도, 알리지도 않은 채 레저 시설만을 설치하고 홍보한다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까?

양산시 행정이 진정으로 양산시민을 위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의 식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삶의 터전인 낙동강 원수의 개선부터 신경을 써야할 일이다. 낙동강 협의체는 낙동강의 활용하기 위하

여 낙동강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강'이 될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진정한 낙동강 유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 나동연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을 기대하겠다.

낙동강협의체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삶을 진정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면 낙동강의 남세균 독소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자체 공동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알리고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